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10월8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10월8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관을 이룬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다고, 공장이 아니라 수림화, 원림화, 공원화가 실현된 휴양소같다고, 로동계급의 문화가 활짝 꽃핀 일터라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 문화회관, 전자도서관, 재단직장, 완성직장, 제품진렬실, 체육관, 은정원, 구내식당, 정양소, 로동자합숙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0월8일공장을 우리 나라 산업시설을 당당히 대표할수 있는 공장, 지식경제시대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공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으로 전변시키자고 하였는데 건설자들이 당중앙의 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반영된 설계의 요구대로 모든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웠을뿐아니라 흠잡을데가 없이 내외부시공을 잘함으로써 우리 나라 산업건설에서 새로운 도약이 일어났다고 기뻐하시였다.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



게 구축하고 최첨단설비들도 그뿐하게 갖추어놓았으며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를 도입한 결과 기업소가 정보화, 수자화된 공장, 에너지를 절약형 공장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현대적인 문화회관과 체육관,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들, 호텔같은 로동자합숙 등도 손색없이 건설하였으며 공장의 얼굴이 살아나게 야외휴식터들과 운동시설들도 특색있게 꾸렸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0월8일 공장은 부강조국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공장건설을 통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

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인들의 투쟁모습에서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해 심장으로 절감했다는 공장일군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있는 인민군대에 일감을 맡길 재미가 있다고, 인민군대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또 한번 창조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시대를 선도하는 인민군대가 이런 희한한 광경들을 하나하나 펼쳐가면 사회주의조국은 날이 달라질것이며 인민들은 날로 번모되고 흥해가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긍지와 자부심,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0월8일공장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전무결하게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하시면서 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593대련합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제462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감사사를 주시였으며 근로자들에게 높은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할것을 친히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9월 3일 만수대에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녀성3중창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의 흥취나는 민요로 이어지며 관람자들의 가슴을 한없는 격정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녀성3중창 《그리움의 하얀 쪽배》,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가 울리자 천만군민을 환포에 안아 사랑과 정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장내는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녀성중창 《만경대혁명학원교가》, 녀

성독창 《그날의 15분》, 경음악원곡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조국찬가》, 녀성독창과 방창 《고백》,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와 선물로 승화된 음악회무대에 녀성독창과 방창 《철령아래 사파바다》가 울려 퍼졌다.

음악회는 녀성중창 《근위부대 자랑가》, 《승리는 대를 이어》로 막을 내렸다.

공원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

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음악회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분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공을 따라배워 예술창작창조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란봉악단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분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드높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사설

## 공화국은 통일강성국가로 무궁번영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수령으로 모시고 통성과 번영을 이룩하여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 겨레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내 넘쳐 공화국창건 66년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건국의 그날에 제정한 첫 국호와 국장, 국기를 장장 60여성상 빛내이며 자주와 선군으로 강위력한 국가로서의 존엄을 떨쳐온 것은 공화국의 크나큰 자랑이며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존엄이 있고 강성번영이 있다.

돌이켜보면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지만 어제날의 식민지약속국이 오늘날은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키돋움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떨치고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거대한 전변이고 자랑찬 승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에 우리 조국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눈부신 전변을 이룩하였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헌신의 고귀한 결실체

이며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으로 하여 공화국의 력사가 자랑스럽고 긍지높은것이다.

공화국의 통성번영의 력사는 투철한 자주와 선군으로 전진하며 승리해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현행생 간직하고 구현하신 애국신조였고 국가정치방향이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자기 활동의 전행정에서 모든 문제를 언제나 인민의 리익,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였고 그 어떤 외세의 강권과 전횡앞에서도 자기의 자주적대를 견결히 고수하였다.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리념으로 세우고 전진하는 공화국을 그 어떤 힘으로도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가 확증하고있다.

공화국의 통성번영의 력사는 독창적인 선군의 길을 따라 불패의 존엄을 떨친 창조와 번영의 력사이다. 위대한 선군사상, 선군령도의 창시자이시며 거장이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공화국을 이끄시려는 전기간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선군으로 공화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창건된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년 국가를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달려든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고 년대와 년대를 이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총포성능은 대결전에서 련전연승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공화국의 력사는 인민위원의 승고한 리념을 빛나게 구현하여온 인민사랑의 력사이다.

인민위원은 공화국의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다. 인민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는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한 명제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공화국을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

며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복리향상을 높이는것을 국사의 첫 자리에 놓고 활동하는 진정인민의 나라로 만드시였다.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적시책들이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국가정치적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로동당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되고 정권도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복부자로 강화발전되고 군대도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자, 창조자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고있다. 공화국을 백년천년 존엄높은 자주주의 나라, 인민이 행복을 향유하는 리상국으로 길이 빛내이도록 하시려는것은 원수님의 뜻이고 그 의지이다. 그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원대한 리상이 인민을 광활한 미래로 향도하고있으며 그의 애국헌신과 정력적인 령

도에 의하여 공화국에는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마련되고있다. 온 나라에 건설의 대진성기가 펼쳐지고 조국강산이 새롭게 변모되고있으며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인민사랑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있다.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인민들의 열정과 용기를 높이 격려하고있다.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인민들의 열정과 용기를 높이 격려하고있다.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인민들의 열정과 용기를 높이 격려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은 나라를 사랑하는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하는 거창하고 숭고한 애국위업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강성국가건설은 민족성원모두가 애국자가 되는데 최후승리의 길이 있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기의 살붙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애국심과 나라의 재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땀을 흘리고 한치의 땅을 위해 한몸도 기꺼이 바치는 헌신과 투신으로 민

족이 알고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다. 유구한 세월 단일한 조국선민족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근 70년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있는것은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민족분열은 곧 배국이다.

은 민족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열의 비극의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통성번영의 길을 열어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은 민족은 조국통일성업실현에서 투철한 주체적관점과 림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행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외세와 야합한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매국배족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집권세력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 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온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은 겨레는 북남선인들을 귀중히 여기며 철저히 고수행하여야 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단합과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은 삼천리강토위에 반드시 통일강성국가를 세우고 자자손손 무궁번영할것이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헌생의 넋이 어려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업적으로 빛나는 나라이다.

조국 땅 그 어디에 나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이어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심혼과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고 창조를 하나, 재부 하나하나가 다 그의 애국유산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은 온갖 열정을 깡그리 다 바치는 무한한 헌신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자신의 위대한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하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실천으로 보여주신 애국의 립장과 자세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이 있었고 나라와 민족의 래일을 위해 뿌리로 사는것이 그의 인생관이었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그의 제일가는 기쁨이요 락이었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조국과 사랑하는 인민을 지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수호의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셨고 인민들을 두고 생각이 많으셨지만 부강할 조국의 래일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신것이였다. 마음속으로는 퍼눈물이 흘렸지만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신것은 변혁거리는

# 열화같은 애국헌신

남의 기계를 사오는것보다 조국의 힘을 키워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려는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가 안아온 대용단이었고 최상의 선택이었다.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위유기도 하시고 살구나무나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이나 인민부대들의 병영을 보시면 한히 웃으시며 살구나무동네, 감나무동네라고 부르곤 하신 장군님

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인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장군님께서 있어서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그의 애국신조였다.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의 뜻이고 의지였다. 언제나 마음속에는 인민이라는 두글자가 짝 차있었기에 그의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 마디마디에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신 인민사랑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는것이였다.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이고 투신이지만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한생을 사랑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뜻이고 의지였다. 언제나 마음속에는 인민이라는 두글자가 짝 차있었기에 그의 《인민들이 좋아하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

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후대관을 지니신 장군님께서 나는 나는 그늘 밑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 애국에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며 무궁번영할 조국의 미래, 먼 후날에 후대들이 볼 덕을 위해 한생을 강렬히 불태우시였다. 구월산유원지건설의 나날에 군인건설자들이 명소의 바위에 새긴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는 글래일을 위해 한생을 바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한생을 사랑해도 다 못하는것이 조국이고 한생토록 헌신해도 만족을 몰라야 하는것이 애국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

력은 단순한 시간의 루적이 아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력은 걸음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안으로 흐르는 참뜻이라고 했다. 무더운 삼복철이나 곳 은비 내리는 장마철 가림 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헌지지도소 식을 들으며 사람들은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을 누구나 가슴뜨겁게 새겨본다.

그이의 애국헌신의 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다.

장군님의 발자취가 깃든 곳을 찾으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의 찬만헌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시는 원수님이다.

지난 8월초 천리마리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몸소 건설주가 되시어 골지의 견재생산지대로 일떠세워 주신 장군님의 로고를 돌이켜보시며 공장의 력사는 오래지 않지만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이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새 력사를 쓰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어도 장군님의 이인위천의 뜻과 체취를 후더운 숨결로 느낄 수 있다. 장군님께서 펼치신 인민 사랑의 력사를 즐기차게 이어가신다.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었을 때는 유부자공장이라고도 하시

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그의 유생이 오늘도 공장의 기계음소리와 함께 메아리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자취가 새겨진 공장, 기업소에서 원수님께서 심중에 새겨안으시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로고를 돌이켜보시며 그이께서는 장군님의 그 인민사랑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실 마음속의지를 굳게 가다듬고계시는것이였다.

장군님에 대한 원수님의 추억은 단순한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끝없는 사랑을 부여 준 위인의 생애가 깃든 성스러운 력사이며 그의 사랑, 그의 애국의 넋으로 인민을 그려안고 영원한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실 미래의 반영인것이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으로 그이와 마음속대화를 나누시며 강성국가 최후승리를 향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체험하고있으며 바야흐로 다가올 희망찬 래일을 확신하고 있는것이였다.

## 오늘도 이어지는 인민사랑의 길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근로자들

모든것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나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불과 몇년도 일떠선 창건거리와 풍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지령스키장, 유류자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정숙평양직공장 로동자합숙소, 동해바다기슭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역시 아이들의 꿈과 리상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중으로 꾸려져 이 곳을 찾는 아영생들의 찬란한 불리우고있다. 동해바다기슭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역시 아이들의 꿈과 리상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중으로 꾸려져 이 곳을 찾는 아영생들의 찬란한 불리우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스키하면 겨울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북유럽나라들의 고산지대를 현상하곤 하던 우리 인민들이 마지령스키장에서 문명의 눈갈기를 날리며 행복과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고있다. 세계적으로 마술은 보통돈많은 유행재종의 《위미의 승마》로 불리우지만 평양시 미림지구엔 건설된 승마구락부는 평범한 근로인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수 있는 대중승마봉사기지로 건설되어 남녀로소모두가 즐기고 있다. 정녕 이 모든것은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황홀한 풍경이다.

합숙생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게 꾸려진 침실들과 목욕탕, 연회장은 식사, 체육 및 유희오락을 마음껏 할수 있는 공원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손색없이 꾸려진 김정숙평양직공장 로동자합숙은 너무도 황홀하여 로동자들의 궁전, 호텔로 불리우고있다. 동해바다기슭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역시 아이들의 꿈과 리상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중으로 꾸려져 이 곳을 찾는 아영생들의 찬란한 불리우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스키하면 겨울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북유럽나라들의 고산지대를 현상하곤 하던 우리 인민들이 마지령스키장에서 문명의 눈갈기를 날리며 행복과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고있다. 세계적으로 마술은 보통돈많은 유행재종의 《위미의 승마》로 불리우지만 평양시 미림지구엔 건설된 승마구락부는 평범한 근로인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수 있는 대중승마봉사기지로 건설되어 남녀로소모두가 즐기고 있다. 정녕 이 모든것은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황홀한 풍경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찾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사람들모두가 사회의 주인으로 긍지높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국가의 혜택속에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 《조선은 예수가 와도 할일이 없는 인간천국》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건설의 대건설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실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위성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유아원과 애육원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과 함께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되고있다.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이 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진실한 생활세부들과 누구나 알기 쉬운 시어들로 형성된 《조국찬가》의 가사는 되새겨볼수록 솟구치는 애국의 감정과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격정을 승화시키며 깊고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얼마전 단마르크에서의 예술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공화국창건 66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노래 《조국찬가》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 마 떼어준 정든 고향집트락 조국이여라 ... 들으면 들을수록 그 무엇이 더 표현할길 없는 숭엄함이 가슴속에 짝 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조국이란 무엇이던가. 고향마을 정든 집이던가, 그리운 얼굴들이던가, 인간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하고 신성한것은 없다. 하기에 인류문화사의 갈피를 돌이켜보면 조국에 대한 예술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세계적인 명작들중에서도 조국주제의 작품들이 가장 아름다운 별무리로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이 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진실한 생활세부들과 누구나 알기 쉬운 시어들로 형성된 《조국찬가》의 가사는 되새겨볼수록 솟구치는 애국의 감정과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격정을 승화시키며 깊고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얼마전 단마르크에서의 예술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금성학원 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의 첫 공연은 《조국찬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글씨 객석을 보니까 단마르크사람들이 《조국찬가》의 선율을 외우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국찬가》야말로 외국인들이 순간에 감동시키는 진짜명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북유럽명예조선열풍을 일으키고 돌아

도 백십여차례나 지도해주시며 피약벌 내려뜨리는 무더운 낮에도,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완공시켜주신 문수물놀이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을 다 전해준다. 쏟아지는 비에 옷살이 젖는것도, 신발에 흙이 묻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유류자동병원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도 못다 주신것이 있으신

바라는것이였다. 인민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랑할수 있는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노래 《조국찬가》를 들으며 누구나 그토록 격정에 젖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공화국은 영원히 굳건하며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은 이 땅우에 반드시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리라는 진리를 심장깊이 철감한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애국의 열정을 끝없이 바쳐가고 있는것이였다. 람홍색공화국기 나뭇기는 이 땅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넋인, 우리의 꿈과 리상을 기어이 이룩하리라. 우리의 슬기, 우리의 금은보화, 우리의 힘으로 이 조성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만들리라. 인민의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담은 노래, 위대한 김정енси대의 애국가 《조국찬가》는 높이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지리 ...

## 수필 노래 《조국찬가》를 들으며

은 나 어린 학생들의 심정만 이겠는가. 누구나 창조와 건설로 약동하고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벅찬 오늘의 현실을 돌이켜볼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만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 헌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 정녕 이 땅의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몸소 시공주가 되시고 설계가 되시어 형성안만 해

듯 입원실마다에 TV와 랑동기를 놓아주시고 뜨겁게 말쑥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올해에만도 세차례나 야영소를 찾아주시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세상에서 으뜸가는 아영소로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류경구강병원과 미림지구엔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며 사회주의문명국상징의 하나인 마지령스키장에도,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으로 불리우는 김정숙평양

것은 이 땅우에서, 이 하늘아래서 자기가 소원하던 모든것을 이루는것이였다. 인간이 조국을 사랑하는것은 조국에 자기의 모든 꿈을 엮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떼떽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은 념원, 전경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서로서로 화목하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싶은 소망, 후손들의 운명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이 살고싶은 소원... 인민은 이 꿈으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지리 ... 본사기자 김춘경





# 애 나 라 제 일 로 종 아

이 국의 들가 에 피 여 난 꽃 도  
 내 나 라 꽃 보 다 곱 지 못 했 소  
 들 아 보 면 세 상 은 넓 고 넓 어 도  
 내 사 는 내 나 라 제 일 로 종 아  
 벗 들 이 부 어 준 한 모 금 물 도  
 내 고 향 샘 처 럼 달 지 못 했 소  
 들 아 보 면 세 상 은 넓 고 넓 어 도  
 내 사 는 내 나 라 제 일 로 종 아  
 노 래 도 아 리 랑 곡 조 가 좋 아  
 멀 리 서 도 정 답 게 불 러 보 았 소  
 들 아 보 면 세 상 은 넓 고 넓 어 도  
 내 사 는 내 나 라 제 일 로 종 아  
 해 와 별 비 치 여 밝 고 정 든 곳  
 내 다 시 안 길 뻔 절 을 하 였 소  
 들 아 보 면 세 상 은 넓 고 넓 어 도  
 내 사 는 내 나 라 제 일 로 종 아

공화국창건 66돐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화국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한마디로 자주와 선군의 력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일찍이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주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인민의 이익의 견지에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여왔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고 자기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자기 식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 밑 바탕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이 놓여있다.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킬 강력한 힘도 갖추고있기에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강한 압력과 《제재》, 군사적위협에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가는 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한다면 하는 조선의 본래를 그때마다 남김없이 파시하곤 하였다.

하여 지난날 회승총 하나 변변한것이 없어 약소국가의 쓰라린 눈물을 삼켜야 했던 공화국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넘겨다볼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 운반로켓보유국,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되었다.

열병식장등에서 파시된 한계를 모르는 위력한 타격수단들의 철의 행진, 인공지구위성발사, 대지를 진감하며 하늘을 박차오르는 로켓발사시험 등은 자주와 선

군의 위력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되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며 신성한 인권존중의 나라이기도 하다.

로동자, 농민, 란부, 도로관리공 등 자본주의제도같은 대반을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되어 나라의 정사를 당당히 론하고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약동하는 젊음으로 사

## 자주와 선군에 민족의 존엄과 안녕이 있다

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도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창건지리,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양사람집,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등 사회주의문명국가의 체모에 어울리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모두 인민의 꿈과 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기에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 통신들과 인민들은 《조선은 한마디로 모든것이 있는 민족자주조선으로 굳게 뭉친 사회》, 《조선과 같이 자주를 정치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관철해나가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더는 없다. 《유일초대국》의 고압적인 횡포나 강박도 통하지 않는 조선이야말로 우리 행성에서 작으면서도 큰 나라, 명실공히 자주강국이다.》,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나라》라고 격찬하고있다.

그러면 북과 잇닿은 저 남녘땅의 실상은 과연 어떤가.

나라의 징표는 자주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외세가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은지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주권없는 세상은 남조선이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이 미국

그리 말살된 암흑사회로, 독재와 폭압이 관무하는 인권의 무덤으로 더욱 전락되었다. 남조선을 외세에 통제로 내맡긴 보수당국은 인민들의 머리에 군림하여 파쑈폭압의 칼을 휘두르며 통일에국세력들은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 각종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전반에 공포와 불안이 만연되고 지어 철부지어린이들까지도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말살지옥인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은 수백명의 어린 생명을 수장한 《세월》호침몰사고와 윤일병라살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군내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인권유린행위를 통해서도 더 잘 알수 있다. 참으로 남조선이야말로 사대로 불모지이다.

자주와 사대, 정의와 부정의, 사랑과 폭행의 대조속에 관이한 북과 남의 현실은 과연 어느 제도가 진정한 인민의 제도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었고있다.

자주로 존엄하고 선군으로 굳건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의 참모습은 세기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곽창호

## 《세상에 북조선같은 나라는 없다》

—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

북조선에 대해 잘 모르는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은 흔히 북조선을 가리켜 《수수끼끼와 같은 나라》라고 말하지만 최고지도자-당-군민이 똘똘 뭉친 세계 제1의 일심단결된 나라라는 의견에는 이견을 달지 않는다. 대부분의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은 《세상에 북조선같은 나라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북핵동포들은 어린이에서 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북미대결전에 대하여서도 조금도 전횡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른바 《엄전사상》이 전혀 없기때문에 조국반도가 엄중한 시기에 접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안한 기색없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에 불타고있다.

북핵동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일심단결을 가장 자랑

로 내세운다.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는 북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방문자모두의 관심사이며 대화의 초점이기도 하다.

일심단결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일심단결의 기초를 마련해주신 김일성주석을 시작으로 김정은령도자에 이르기까지 최고지도자들의 령도에 의해 창조되고 다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조선최고지도자들이 체현해온 이민위천사상과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과 그 믿음은 곧 북핵동포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지극한 흠모와 함께 절대적 충실성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결합된것이 바로 북조선의 일심단결의 핵심이 된다고 북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 북핵사회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북미대결전을 맞

아 김정은최고사령관두리에 똘똘 뭉쳐있다. 이러한 일심단결된 북부조국의 위력은 그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이 북조선의 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체 군민이 김정은령도자의 명명만 기다리며 북미대결전을 위한 준비태세에 만전을 가하고있는 한편 각계각층 북핵동포들은 긴장한 정세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없이 신심과 신념에 찬 자세로 자기 분야의 직장에 매진하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출퇴근하는 북핵동포들의 표정들은 활기에 차있고 이들의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르듯 높았다. 이것이 이곳 북핵사회의 전반적인 현주소로 되고있다.

기자는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때에도 이곳 평양분위기를 취재한바 있다. 그 당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김정은령도자의 손목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느꼈던 감동과 소감 그리고 그 후에 그분과 북핵동포들의 관계를 취재하면서 《세상에 북조선같은 나라는 또 있을까.》하고 자문하고 자답한바 있었다.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지구촌에 오로지 북조선밖에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력사상 이런 일심단결사회를 이룬 나라는 전무후무하다.》는것이 북을 제대로 파악하고있는 사람들의 일관된 관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최고지도자와 군민이 일심단결을 이뤄 하나로 응집된 나라는 이 세상에 북조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로길남

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공화국의 붉은 오각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

## 람홍색공화국기

하시였으며 공화국정권이 전면적으로 계승한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상징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

해가는 조선인민의 기개와 끊임없이 번영하는 공화국의 위대한 전망을 상징한다.

국기의 붉은 폭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주권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항일투

사들과 영웅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를 상징하며 령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필승불패의 령도를 상징한다. 국기의 흰 동그라미와 두개의 흰 폭은 조선민족이 수

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있는 단일한 민족이라는것과 우리 인민이 슬기롭고 용감하며 애국적이며 결백하고 강한 투지를 가진 영웅적인민이라는것을 상징한다.

국기의 아래쪽에 있는 두개의 푸른 폭은 반제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세계 진보적인류와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역센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한다.

본사기자



